

여자 컬링, '속적' 일본과 결승행 다툼

예선 1위 한국, 오늘밤 4강 대결...예선 유일한 패배 설욕 다짐
“두번의 패배는 없다” 각오...환상적 호흡에 분위기도 최고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한민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 결승 길목에서 만났다.
한국은 21일 덴마크와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9-3으로 완승을 거두고 연승을 질주하며 예선 1위(8승 1패)로 4강 플레이오프에 올랐다.
23일 밤 열리는 한국의 준결승 상대는 예선 4위(5승 4패)를 하며 4강행 막차를 탄 일본이다.
결승 진출을 놓고 '가위바위보도

저선 안된다'는 한일전이 성사됐다. 김민정(37)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랭킹 '톱5'를 모두 제압하며 최고의 경기력을 뽑내고 있다.
그러나 예선전 유일한 패배를 안긴 팀이 일본이다. 대표팀은 대회 초반인 예선 2차전에서 일본에 5-7로 졌다. 7엔드까지 5-3으로 앞서다 남은 세 엔드에서 4점을 내주며 역전패했다.
한국은 일본전 패배 이후 파죽의

7연승을 내달렸다. 일찌감치 4강 진출을 확정된 뒤 러시아 출신 선수(OAR)와 덴마크를 각각 8엔드와 7엔드 만에 제압하며 환상 호흡을 자랑했다.
예선전 패배를 설욕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대표팀이 예선 기간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승리를 점칠 수 있지만 한일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절그러운 상대임에는 분명하다. 기본 전력 이외의 변수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 경기 중반 이후 리드할 경우 역전을 내주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했지만 일본전은 7엔드까지 앞서다 역전을 내줬다.
쫓겨온 실수가 없었던 스킵 김은정(28)이 9엔드 마지막 드로우샷을 실패하며 경기를 내줬다.
김은정은 9차례 예선에서 78%의 샷 성공률을 보였지만 일본전 샷 성공률은 80%로 9경기 중 가장 낮았다. 그 만큼 일본을 의식한 탓에 제대로 된 샷을 구사하지 못했다든가 방증이다.
대표팀은 '두 번의 패배는 없다'는 각오로 일본전에 임할 계획이다. 주장 김은정부터 막내 김초희(22)까지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는 만큼 팀 분위기는 최고조다.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겁다.
가까스로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일본도 필승을 다짐하기는 마찬가지다. 예선 마지막 스위스전에서 4-8로 패하며 눈물을 쏟았지만 스웨덴이 미국을 꺾으면서 기회를 얻었다.
스킵인 후지사와 사츠키(27)는 일본 매체와 인터뷰에서 "스스로 4강에 올랐다가보다 행운이라고 생각하다 앞으로 두 경기 남았다. 망설임 없이 경기에 임하겠다"며 "한국은 기세가 좋은 팀이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좋은 경기를 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국이 준결승에서 승리하면 영국·스웨덴 전 승자와 결승에서 맞붙는다. 두 번째 올림픽 출전 만에 결승 무대까지 밟을지 관심이 고조된다.

이승훈, 亞 이런 스케이더는 없었다

동계올림픽 4번째 메달 최다...내일 주종목 매스타트 출전

이승훈(30)이 아시아 스피드스케이팅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다. 이승훈은 2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에서 김민석(19), 정재원(17)과 함께 은메달을 따냈다.
3분38초52를 기록하며 노르웨이(3분37초32)에게 석패했다.
이승훈에게는 동계올림픽 4번째 메달이다. 아시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최다 메달 기록이다. 메달 셋을 보유한 이상화, 고기아라(일본), 시미즈 히로야스(일본)를 따돌렸다.
이승훈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만m 금메달과 5000m 은메달을

에 걸었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장거리에서 메달을 획득한 첫 아시아 선수가 바로 이승훈이다.
4년 뒤 아시아 빙속 역사를 또 새로 썼다. 주형준, 김철민과 함께 2014 소치 대회 팀추월에 출전한 이승훈은 은메달을 손에 쥐었다. 2006 토리노 대회에서부터 선보인 팀추월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캐낸 아시아 선수가 됐다.
이승훈은 이날 팀추월에 에이스로 나섰다. 8바퀴 중 4바퀴를 앞에서 이끌었다. 팀추월 선수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에서 동생들을 빠르게 이끄는 것"이라는 말을 실천했다.
이승훈은 24일 자신의 주종목인 매스타트에 출전한다. 5번째 메달을 쫓다면, 또 신기록이다.



뉴스스

ISU, 中 쇼트트랙 반칙 장면 공개...논란 종지부



ISU가 공개한 중국 반칙 장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의 관중을 두고 중국측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판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ISU는 해당 장면의 사진을

첨부하며 중국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중국은 20일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한국에 이어 2위로 골인했다.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3, 4위를 차지했다.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 끝에 중국과 캐나다를 실격 처리했다.
중국 선수들은 즉각 반발했다. 실격 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한 선수는 자신들이 차기 대회 개최국인 점을 거론하면서 "2022

년에는 공정한 대회가 될 것"이라며 마치 편파 판정의 희생양이 된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경기 하루 뒤인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과 캐나다의 페널티에 대해 설명한 ISU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사진을 들고 나왔다.
ISU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에는 중국 마지막 선수가 주자 교체 과정에서 최민정의 진로를 방해하는 모습이 정확히 포착됐다. 앞서 주행하던 바깥쪽을 유지한 뒤 추후 추월의 기회를 엿보다 했지만 많이 급했던 중국 선수는 무리하게 인코스로 파고들다 최민정과 충돌했다.
ISU는 "쇼트트랙 결승에서 나온 심의 내용의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최종 주자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주행 방향을 바꾸면서 한국 선수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ISU가 명쾌한 해명을 나서면서 오심을 의했던 중국측이 머쓱한 처지가 됐다. 편파 판정 논란 또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캐나다의 실격 이유도 공개됐다. 사진에는 한 바퀴가 채진 캐나다 선수가 주자 교체 후에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한국과 중국 선수를 방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빅토르 안, 러시아·한국 등 두 나라서 코치직 제의받았다”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스타 빅토르 안(33·안현수)이 러시아와 한국 양쪽으로부터 코치직을 제안 받았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21일(한국시간)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소식통을 인용해 "빅토르 안이 현역에서 은퇴한 후 러시아에서 코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며 "이미 논의된 내용이다. 빅토르 안이 결정 후 답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가 선수로서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러나 알렉세이 크라프초프 러시아빙상연맹 회장은 "빅토르 안이 러시아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서도 "코치직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향후 2년 동안 선수로 뛰게 될 것이다"고 해향 후 안현수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즈베스티야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빅토르 안을 코치로 영입하려고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이즈베스티야에 "우리 선수들과 소통을 했고 때로는 조언도 했다"며 "비공식적으로 논의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빅토르 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했지만 러시아의 조직적 도핑 스캔들에 연루돼 개인

자격으로도 참가하지 못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의 조직적 스캔들과 관련해 도핑 규정을 충족하는 선수들에 한해서만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로 평창행을 허락했다.
빅토르 안은 도핑 규정 위반 선수 명단에 없었지만 IOC가 최종적으로 올림픽 출전을 허용한 169명의 OAR 자격 선수에 들지 못했다.
빅토르 안은 지난달 26일 IOC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타이틀 획득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어떤 구실도 주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고 IOC의 결정에 반발하며 평창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동료 선수들과 함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CAS가 IOC의 손을 들어주면서 빅토르 안은 조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없게 됐다.

뉴스스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 中, 16년만의 ‘노(No)골드’에 실망”

미국소리방송 중국어판 “최소 3개 획득 예상됐지만 부진한 성적” 지적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중국이 평창올림픽 폐막 3일을 앞두고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가운데 이런 부진한 성적은 중국에 실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미국소리방송(VOA) 중국어판은 "중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노 골드'라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언론은 이번 올림픽 개막 이전 중국은 최소 3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왔지만 실적 등으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는 사상 최다인 금메달 5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는 금메달 3개를 획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서 중국팀은 강세 종목인 쇼트트랙에서 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VOA는 이제 남아 있는 경기 가운데서 중국이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은 22일 금메달 유망주 우다징이 출전하는 남자 쇼트트랙 500m라고 전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원은 지난 19일 "중국공산당 19

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신시대'를 선언한 이후 첫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의 성적에 대해 시 주석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에 정통한 소식통은 보원에 "시 주석이 설날 그림날(15일) 저녁 부인과 함께 동계올림픽 중계를 보고 그 다음날 평창에 특별 대책팀을 보냈다"고 밝혔다.

뉴스스

‘1강’ 전복현대, 내일 팬들과 출정식

영입·신인 선수 첫선

K리그 디펜딩 챔피언 전복현대(단장 백승권)가 팬들과 함께 새 시즌의 출발을 알린다. 전복은 24일 오후 2시 전라북도청 대공연장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출정식 1부에서는 선수단 출사표와 신입선수 소개, 우승기원 퍼포먼

스 등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신인 선수들의 댄스타임과 레크리에이션, 팬 사인회, 포토타임 등이 마련됐다.
올 시즌 영입된 아프리카노, 타야고, 홍정호, 손준호, 임신영과 송범근을 비롯한 신인선수들은 전복팬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뉴스스

지역광고이메일주소: jingwenzhibo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